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 성명학(姓名學)의 영향

김만태*

〈차 례〉

1. 머리말
2. 한국사회의 작명 경향과 작명법
3. 창씨개명 시기 일본 성명학의 전파와 영향
4. 맺음말

[국문초록]

일본 성명학의 시조인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가 1920년대 후반에 창안한 오격부상법(五格剖象法)에 기원을 둔 수리(數理) 성명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작명법이다. 수리성명학은 성명과 연계된 81가지 수의 신령한 뜻에 의해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간주하고 성명을 천(天)·인(人)·지(地)·총(總)·외(外)의 5가지 격(格)으로 나눈 후, 그 각각에 해당하는 성명의 한자 획수를 계산하여 운명의 길흉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1940년 당시 조선에서의 창씨개명 강행은 일본의 작명가들에게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일본식 성명학 전파를 위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으므로 연일 대대적으로 그들의 일본식 성명학을 과장해서 홍보하였다. 이로 인해 창씨개명 시기 후에는 이름이 일생의 길흉과 깊이 연관된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한국에서도 생겨났으며, 길한 이름과 흉한 이름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일본식 수리성명학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본디 한국인에게 이름은 서로를 호칭하거나 가문을 나타내는 부호였으나 창씨개명 시행 이후에는 복잡한 운명 부호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고, 그 길흉의 판단 기준은 일본식 성명학이 되었던 것이다. 내선일체란 명분하에 조선인의 황민화(皇民化)정책을 본격화하려고 강행한 창씨개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로 비록 5년 만에 그쳤지만 일본식 성명학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작명하는 관행과 이름이 일생의 길흉을 좌우한다는 과장된 운명 논리는 통계학이란 미명하에

* 동방대학원대학교 미래예측학과 조교수

불식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착되어 성행하고 있다.

[주제어] 창씨개명, 성명학, 수리성명학,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 81수, 작명

1. 머리말

공동체 언어를 이용해 구성원들이 서로를 구별하는데 사용하는 표현 형식인 이름은 각 부족·종족·민족이나 국가 등 공동체만의 독특한 문화적인 함의를 담고 있다. 1940년에 일제가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려는 저의로 강압 시행한 창씨개명(創氏改名) 정책이 이를 잘 말해준다.¹⁾

그러나 창씨개명 시기에서와 달리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자발적 개명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0~2009년의 10년간 84만4615명이 개명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민 60명 중 1명인 셈이라고 한다. 개명신청의 직접적인 사유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나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²⁾ 운명론적 사유로 개명하는 추세는 현재 한국사회의 불안요소와 맞물려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다.

창씨개명 시행 이전 한국인에게 이름은 개별 호칭 부호나 가문을 나타내는 부호로서의 역할에만 대개 충실하였다. 그러나 창씨개명 시행 이후 한국인에게 이름은 복잡한 운명 부호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즉 이름에 담긴 음(音)과 획(劃)의 음양오행 중화와 상생, 선천적인 사주팔자와의 조화, 상(象)과 수(數)의 길성(吉星) 추구 등으로 이름을 통해 현세에서의 복(福)인 부귀영화와 공명창달, 무병장수 등을 적극적으로 기원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성명학은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의 수리(數理) 성명학으로서 1920년대 후반 일본의 성명학 시조로 추앙받는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에 의해 창안된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성행하던 구마사키의 일본식 성명학이 때마침 실시된 일제의 창씨개명 정책에 편승하여 조선으

1) 김만대,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 기복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5(한국종교학회, 2011a), 151~152면.

2) 『한국일보』, 「국민 60명중 1명이 개명 신청」, 2010. 3. 22.

로 유입되어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되면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고 지금까지도 성명학의 과장된 운명논리가 존재하고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패배로 인해 식민지 기구의 와해와 함께 창씨개명 정책에 의한 일본식 씨명은 5년간만 계속되었을 뿐 정착되지 못하고 소멸되었다.³⁾ 하지만 이때 전파된 일본식 수리성명학의 잔재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절대 어겨서도 안 되는, 여기면 마치 큰일이라도 당할 것처럼 주장하는 철칙이 되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성명학자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주장하던,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흑세무민의 억지가 아직도 통계학이란 명분 아래 이 땅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고사하고 관심조차도 없다.

지금까지 수행된 창씨개명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관련 법령의 해설과 해석, 조선과 일본의 성과 씨 차이를 중심으로 창씨제도의 제도적 특징 분석, 시행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역할 규명, 창씨개명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 방식, 조선과 대만의 창씨개명·개성명 비교 등이다.⁴⁾ 이름과 이름짓기 즉 성명에 관한 연구도 한국인의 가치관과 신앙·제도·관습 등을 이해하려는 한 방법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관련 연구가 주로 어문학계에서 수행되어 왔으나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역학(易學) 분야에서도 점차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⁵⁾

3)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창씨개명: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산처림, 2008) (水野直樹, 『創氏改名: 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東京: 岩波新書, 2008), 70면.

4) 구광도,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45(4)(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김필동, 「일제의 창씨개명정책과 족보: 지역 종족집단의 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 21(4)(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金英達, 『創氏改名の研究』(東京: 未來社, 1997); 김용욱, 「韓國姓氏에 관한 法制史的 研究」, 『가족법연구』 9(한국가족법학회, 1995);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앞의 책, 2008(水野直樹, 『創氏改名: 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東京: 岩波新書, 2008));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26(승실대학교사학회, 2011); 이승일,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창씨개명·개성명 비교 연구」, 『대동문화연구』 76(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미야다 세츠코·김영달·양태호 지음, 정운현 편역, 『創氏改名』(학민사, 1994)(宮田節子·金英達·梁泰昊, 『創氏改名』(東京: 明石書店, 1992)); 정주수, 『창씨개명 연구』(동문, 2003);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관원진일,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법사학연구』 22(한국법사학회, 2000);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5) 김만태, 앞의 글, 2011a; 김세봉, 「한국인의 성과 이름에 대하여」, 『동양학간보』 13(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박승목, 「성명학의 이론정립과 과제」(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송하

그렇지만 일제 창씨개명 시기에 전파된 일본 성명학의 유래와 현황, 운명론적 사고에 근거한 그 영향의 잔재 등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시 일본 성명학이 조선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매체인 창씨개명 홍보 신문광고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방식을 다각도로 설명하는데 또 하나의 시각을 제시하고, 아직도 작명가들에 의해 일본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국의 작명 실태가 개선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2. 한국사회의 작명 경향과 작명법

오늘날 한국인의 이름 즉 성명(姓名)은 부계혈통을 나타내는 성(姓)과 개인을 가리키는 명(名)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성은 본관(本貫)과 결합하여 가문(家門)을 나타내고, 명은 항렬(行列)을 통하여 가문의 대수(代數)를 나타낸다. 지배층에서 성명이 일반화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초기부터이며, 인구가 증가하고 사회가 다변화되며 친족공동체가 분화됨에 따라 성과 본관도 세분화를 거듭해 왔다.⁷⁾

본디 한국인의 이름은 토착어인 알타이제어(Altaic languages)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三國史記)』에 “居柒夫는 荒宗이라고도 하였는데 성이 김씨이다.”⁸⁾라고 하였으니, ‘居柒’은 우리말 ‘거칠’을 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荒’은 그 뜻을 따서 중국어로 번역 표기한 것이다. 이러한 예는 상당히 많은

순, 「성씨별 항렬자 연구」(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신도희, 「성명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사용현황 연구」(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안승웅, 「한국인의 작명실태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2010); 이광숙, 「사회계층과 작명」, 『어학연구』 17(1)(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1);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논총』 16(온지학회, 2007); 이훈종, 「우리나라 작명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14(건국대학교, 1972); 주립립, 「한국과 중국의 이름에 관한 비교 연구」(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채소영, 「성명학의 이론적 고찰」(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6) 보통 이름이라 하면 성(姓)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부르는 말이지만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 이름 즉 성명(姓名)이라고도 한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두산동아, 1999), 4916면). 이 글에서도 ‘성과 이름’이라 하여 성과 함께 표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냥 ‘이름’이라 하면 대체로 ‘성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7) 김만태, 앞의 글(2011a), 156-157면.

8) 『三國史記』 卷44, 列傳4 居柒夫, “居柒夫[或云荒宗], 姓金氏.”

데 『삼국유사(三國遺事)』에도 “赫居世王이라 이름 했는데 아마 우리말일 것이다. 혹은 弗矩內王이라고도 하니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뜻이다.”⁹⁾라는 기록이 있는데, ‘弗矩內’는 우리말의 ‘불근(不)뉘’를 음으로 표기한 것이고 ‘赫居世’는 그 뜻을 중국어로 옮긴 것이다.¹⁰⁾

그러나 한자(漢字)의 유입과 성(姓)의 보급에 따라 고려조에서 점차 후대로 올수록 토착어 이름을 짓는 경우가 줄어들며 한자식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려조까지만 하더라도 왕족도 토착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선조에 이르러서는 양반뿐 아니라 양민(良民)인 경우에도 한자식 이름을 짓는 경향이 많아졌다.

예를 들면 연산군 6년(1500)의 다음 기사에 나오는 이름들 중 윤필상·한치형·성준·이극균·이극돈·김자정·채수·최수산 등은 한자식 성명이며, ‘구자모지’는 토착어 이름(성이 구씨일 수도 있다), ‘김어눌지’는 성에 토착어 이름이 붙여진 것이다.

尹弼商·韓致亨·成俊·李克均·李克墩·金自貞·蔡壽를 임금의 은밀히 불러, 해당도에 도망하여 거주하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사람의 여자를 얻어서 낳은 아이에게 아버지를 따르게 할 것인가, 어머니를 따르게 할 것인가 하는 일을 의논하도록 하니, 윤필상 등이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 사람 仇自毛知·金於訥只·崔守山 등이 모두 중국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과 딸을 많이 낳았는데, 5세 이하된 아이가 4명이나 됩니다.”¹¹⁾

『예기(禮記)』에는 자식의 이름을 짓는 법에 대해 적고 있고,¹²⁾ 『춘추좌전(春秋左傳)』에는 이름을 짓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¹³⁾ 또한

9) 『三國遺事』 卷1, 紀異1 新羅始祖 赫居世王,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10) 허용, 『한글과 민족문화』(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32~33면.
 11) 『燕山君日記』 卷38, 연산군 6년 7월 己未, “命召尹弼商、韓致亨、成俊、李克均、李克墩、金自貞、蔡壽議海島逃居我國人娶漢女所產, 從父從母等事. 弼商等議: “我國人仇自毛知、金於訥只、崔守山等俱娶漢女, 多產男女, 而五歲以下者四人.”
 12) 『禮記大全』 卷1, 曲禮上·第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나라의 이름으로써 짓지 않으며, 해와 달로써 짓지 않으며, 질병의 이름으로써 짓지 않으며, 산천의 이름으로써 짓지 않는다(名子者, 不以國, 不以日月, 不以隱疾, 不以山川).”
 13) 『春秋左傳注疏』 卷5, 桓公六年, “환공이 신수에게 이름짓는 법을 물으니 신수가 대답하였다. “이름짓는 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사온데 신(信)이 있고 의(義)가 있고 상(象)이 있고 가(假)가 있고 유(類)라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갖고 나온 이름이 될 것으로써 이름짓는 것을 신(信)이라 하고, 장래에 바라는 훌륭한 덕(德)의 뜻을 붙여서 이름짓는 것을 의(義)라 하고, 용모와 비슷한

하륜(河崙, 1347~1416)이 아들의 이름을 ‘久’라고 지으면서 이름의 뜻이 담긴 글을 적었듯이 예전에는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의미를 함께 적어서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나무가 자라기를 오래하면 반드시 산중에 우뚝 솟고, 물이 흐르기를 오래하면 반드시 바다에 다다른다. 사람의 배움도 그러하니 오래하여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공을 이루는 데 이른다. 너의 이름을 久라고 하니 너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뜻을 생각하여 감히 방자하지 말며 (...) 너는 삼갈 것이며 너는 힘쓸지이다.¹⁴⁾

역사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작명의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문마다의 항렬자를 따라 이름 짓고 다른 하나는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이름짓는 것이다. 항렬자를 따르는 방식은 주로 양민 이상의 남성들에게, 항렬자를 따르지 않고 짓는 방식은 노비나 여성들에게 적용되었다. 항렬자를 따르는 경우도 다시 세분되는데, 오행(五行)을 기준으로 하기, 천간(天干)을 기준으로 하기, 지지(地支)를 기준으로 하기, 숫자(數字) 순서로 하기, 덕목(德目) 문구로 하기, 절충하기 등으로 나뉜다. 항렬자에 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오행의 상생 배열을 따르고 있다.

●오행 상생(木火土金水)

南陽洪氏(唐洪系) : 桂 - 熙 - 重 - 銖 - 淇 - 東 - 然 - 喆 - 商 - 求

●숫자(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潘南朴氏 : 雨 - 天 - 春 - 憲 - 吾 - 章 - 虎 - 謙 - 旭 - 平

것을 취해서 이름짓는 것을 상(象)이라 하고, 태어났을 때 관계되는 사물을 취해서 이름짓는 것을 가(假)라 하고, 아버지와 관계되는 것을 취해서 이름짓는 것을 유(類)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쓰지 않고, 관직 이름을 쓰지 않고, 산천 이름을 쓰지 않고, 질병 이름을 쓰지 않고, 가족 이름을 쓰지 않고, 기물과 화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주나라 사람은 생전의 이름을 신주(神主)로 모시고, 세상에서 이름 불림이 끝나면(죽으면) 그 이름은 휘(諱)라 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라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으면 그 나라 이름을 없애고, 관직 이름으로써 이름을 지으면 그 관직 이름을 없애고 (...) 그러므로 중요한 것의 이름으로써는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公問名於申繻, 對曰: 名有五: 有信, 有義, 有象, 有假, 有類. 以名生爲信, 以德命爲義, 以類命爲象, 取於物爲假, 取於父爲類. 不以國, 不以官, 不以山川, 不以隱疾, 不以畜牲, 不以器幣. 周人以諱事神, 名終將諱之. 故以國則廢名, 以官則廢職 (...) 是以大物不可以命.”

14) 『浩亭先生文集』卷2, 說·名子說, “木之生, 久則必聳乎巖壑, 水之流, 久則必達乎溟渤. 人之學亦然, 久而不已, 則必至于有成. 名汝曰久, 汝其顧名而思義, 毋敢放肆, (...) 汝其敬之, 汝其勉之.”

• 덕목 문구 → 오행 상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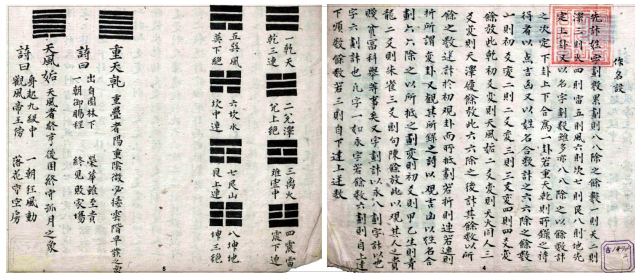
陽城李氏: 聖-賢-仁-義-禮-智-洙-來-煥-奎-鎬-濟-柄-燦-基-鍾

• 천간 → 오행 상생

高靈朴氏(副倉正公派): 九-炳-河-成-紀-慶-新-重-癸-根-赫-奎-鐸-求

항렬자를 따르지 않는 경우는 출생 상황(태몽·시기·장소·서열)을 반영하기, 부모의 소망·감정을 반영하기, 외모·재능상의 특징을 반영하기 등으로 구분된다. 근래에 와서는 순우리말로 짓기, 믿는 종교의 인명을 빌려서 짓기, 영어로 말하기 좋게 짓기 등의 경향도 두드러진다.¹⁵⁾

언어의 금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말이 씨가 된다면서 말의 주력(呪力)을 믿는 언령(言靈)사상¹⁶⁾은 현대 한국사회의 작명법에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1914년에 필사된 『작명비요(作名秘要)』¹⁷⁾가 있지만 이름과 운명론의 연결고리가 일반화된 것은 아니었다.



〈그림 1〉 『작명비요』(1914)의 作名訣과 卦象

출처: 국립중앙도서관(<http://www.nl.go.kr>)

15) 이복규, 앞의 글, 370~381면 참조.

16) 출생의례 중에는 作名이 있는데 본명을 두고서 일부러 개뽕이·쇠뽕이·바우 등과 같은 천한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름이 천하면 아이가 천하다고 邪鬼가 거들떠보지 않으므로 아이가 무병장수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예쁜 아기를 보고도 사람들이 “그 놈 밍개 생겼다”고 반대로 말하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이는 초자연적 존재인 귀신을 사람이 직접 속이고 조작·통제하려는 주술행위이다. 김만태, 『한국 일생의례의 성격 규명과 주술성』, 『정신문화연구』 34(1)(한국학중앙연구원, 2011b), 196면.

17) 필사자 미상, 『作名秘要』(191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姓名字의 劃數를 세어서 주역 괘를 만들고, 이를 六爻占으로 해석하여 운명과 길흉을 판단하는 易象 성명학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1933년에 간행된 무라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조선의 점복과 예언(朝鮮の占トと豫言)』¹⁸⁾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위한 구실 제공이라는 목적 아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조선 민중은 다른 외력과 외물에 의해 자기생활이 결정되고 그 결정된 대로 이끌려 간다고 하는 숙명관·운명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 교화와 과학적 지식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상식적 판단력과 올바른 비판력을 갖추지 못한 탓에 오래전부터 조선에서 점복과 운명신앙이 성행해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점복과 예언』은 당시 조선의 방대한 점복관련 자료를 집대성했다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당시 조선사회에 이름이 당사자 운명의 길흉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아래 개명을 통해 운명을 바꾸려했다는 유형의 기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193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당시 조선에는 당사자의 이름과 운명론을 결부 짓는 경향은 그리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름에 관한 언령사상이 복잡하게 된 계기는 창씨개명 시기 일본의 수리성명학 자들에 의해서이다. 이들이 개명·성명을 개운(開運)의 수단으로 대대적으로 광고 하면서 성명 글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점차 믿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작명법들이 1940년대 이후 점차 출현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작명 방법을 그 주요 특징에 의거하여 유형화해보면 대략 9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역상(易象) 성명학, 수리(數理) 성명학, 음령오행(音靈五行) 성명학, 용신(用神) 성명학, 삼원오행(三元五行) 성명학, 측자과자(測字破字) 성명학, 곡획(曲劃) 성명학, 신살(神殺) 성명학, 소리 성명학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한국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서 전파된 수리성명학이다. 수리성명학은 성명의 한자 획수를 계산하여 그 배합한 수로 4~5개의 이름 격(格)을 정한 후 81개의 영동수(靈動數)에 각각 담긴 의미와 길흉으로 일생의 운세를 판단하여 이름을 짓는 작명법이다. 이 작명법은 1920년대 후반 일본에서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가 4자(字)로 구성된 일본인의 성명 판단을 위해 고안했

18)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朝鮮總督府, 19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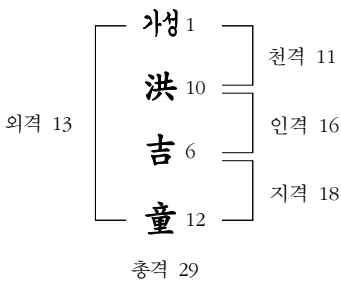
는데¹⁹⁾, 창씨개명 시기에 유입·활용되면서 3자 성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본래의 성(姓) 앞에 가성수(假姓數)²⁰⁾ 1을 넣거나 하는 식으로 변형되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작명가들에 의해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표 1〉 한국 수리성명학의 5격(일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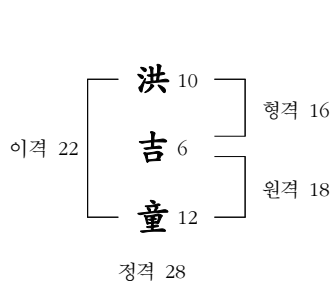
격명	내 용	운세	비고
천격	가성수 1과 성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또는 성의 한자 획수		
인격	성과 이름 첫 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주운(主運)	주격
지격	이름 2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전운(前運)	명격
외격	가성수 1(또는 성)과 이름 끝 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부운(副運)	
총격	(가성수 1과) 성과 이름 모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후운(後運)	

〈표 2〉 한국 수리성명학의 4격(변형식)

격명	내 용	운세	비고
원격	성을 제외한 이름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초년운	지격·명격·부운(副運)
형격	성과 이름 첫 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청장년운	인격·주격·주운(主運)
이격	성과 이름 끝 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중년운	천격·외격·외운(外運)
정격	성과 이름 모두의 한자 획수를 합한 수	노년운	총격·총운(總運)



〈그림 2〉 수리성명학의 5격 예시



〈그림 3〉 수리성명학의 4격 예시

19) 熊崎健翁, 『姓名の神秘』(東京: 紀元書房, 2009), 序.

20) 성이 대부분 2글자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성이 대부분 1글자이므로 본래의 성 앞에 1획인 가상의 성이 있다고 보고 假數로서 1을 적용하는 것이다. 二字姓은 가성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창씨개명 시기 일본 성명학의 전파와 영향

1) 일본식 수리성명학과 구마사키 겐오

앞에서 고찰했듯이 수리성명학은 성명 한자의 획수를 계산하여 그 배합한 수로 4~5개의 격을 정한 후, 81개의 영동수에 각각 담긴 의미와 길흉을 판단하는 작명법으로서, 현재 한국에서 작명가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작명법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 작명가들은 이러한 한자 성명의 수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므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한글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명가들조차도 그 근원은 알지도 못한 채 수리성명학은 중요하며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반 작명가들의 통념과 달리 수리성명학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학술적이지도 않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리성명학은 일본 성명학의 시조로 평가받는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가 1920년대 후반에 창안한 작명법에서 유래하였다.

구마사키는 81 영동수(靈動數)가 포함된 자신의 수리성명학의 요체를 『주부의 벗(主婦の友)』이란 일본 여성잡지의 1929년 신년호에 발표한 후 이어서 『성명의 신비(姓名の神秘)』란 단행본으로 발간하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²¹⁾

1881년 기후현(岐阜県)에서 태어난 구마사키 겐오(본명은 健一郎)는 소학교 입시교사를 거쳐 주쿄 신문사(中京新聞社), 지지 신보사(時事新報社) 등 언론계에서 재직하였으며, 1922년 42세 때 지지 신보사를 그만두고 일본식 성명학의 연구와 정리에 몰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구마사키는 성명 한자의 정자(正字) 획수를 기반으로 성명의 획수를



〈그림 4〉 구마사키 겐오
출처: <http://www.goseikaku.com>

21) 熊崎健翁, 앞의 책, 序, “本書の骨子を成す要綱は當時婦人雜誌界の王者の觀のあつた『主婦の友』の昭和四年新年号に發表され, これに補筆を加えて一冊に纏めたものが引續き實業之日本社より單行本として發行されました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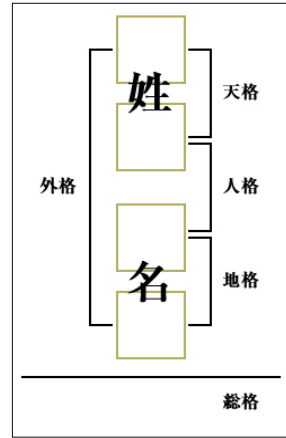
산정(算定)한 후 그 성명에 연계된 1~81수의 유도에 의해 그 사람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보면서 성명을 천격(天格)·인격(人格)·지격(地格)·총격(總格)·외격(外格)의 5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획수로써 성명에 담긴 운명의 길흉을 판단하는 오격부상법(五格剖象法)을 창안하였다.

천격은 성(姓) 두 글자의 획수를 합한 수로서, 선조(先祖) 이래 전승된 것이며 천격의 수에 함축된 영의(靈意)는 운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인격의 수와 대조하여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있다. 성의 아래 글자와 이름의 위 글자의 획수를 합한 수인 인격은 성명

이 사람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서 가장 중대하며, 근본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격의 수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 운명을 한눈에 꿰뚫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성격도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인상(人相)을 볼 때 눈썹 사이에서 코끝까지를 지칭하는 중정(中停)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운명을 이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인격으로 보는 법은 비전(秘傳)이라고 구마사키는 말한다. 그리고 지격이란 것은 이름 두 글자의 획수를 합한 수이고, 총격은 성과 이름 글자의 획수 전부를 합한 수이고, 외격은 총격에서 인격을 뺀 수이다.²²⁾

또한 구마사키는 1928년 도쿄 오모리(大森)에 성명판단(姓名判斷)을 위한 종합 운명감정소로서 오성각(五聖閣)을 설립하였다. 오성각은 운명학 분야에서 성명감정이라는 영역을 처음으로 개척한 이른바 일본 성명학의 총본산으로 여겨진다. 1929년 실업지일본사(實業之日本社)에서 수리성명학의 효시가 되는 『성명의 신비(姓名の神秘)』를 발간하였다. 이 책이 일본 전역에서 많은 주목을 끌게 되자 구마사키 자신이 직접 운영하던 오성각출판국에서도 발행되었다.²³⁾

그 후 구마사키의 수리성명학은 이후 보급·분파된 많은 성명판단법과 작명법의 발단이 되었으며, 같은 한자문화권인 중국이나 대만, 한국 등에서 성행하는 성



〈그림 5〉 구마사키의 오격부상법
출처: <http://www.goseikaku.com>

22) 위의 책, 30~31면.

23) 위의 책, 序.

명학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1940년 일제에 의한 창씨개명 시기에 조선·만주·내몽고[蒙疆] 등지에 판매된 일본의 성명판단·작명 서책인 『(성명판단) 이름 짓는 법[(姓名判斷) 名前のつけ方]』²⁴⁾의 내용이 구마사키의 성명학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예가 된다.

2) 81 영동수와 수리성명학의 관계

본디 역학(易學)에서 81수는 중국 남송의 채침(蔡沈, 1167~1230)²⁵⁾이 수본론(數本論)·일실만분(一實萬分)의 논리를 세우고 그려낸 구구원수도(九九圓數圖)와 범수지도(範數之圖)의 81수 관념에 근본을 두고 있다.

채침은 9를 궁극적 수, 즉 모든 존재의 본원적 수로 여기고 이를 논거로 하여 세계의 구도에 대한 수학적 연역 방식을 도출해내었다. 그 내용을 저술한 책이 『홍범황극내편(洪範皇極內篇)』 5권이다.²⁶⁾ 그는 『주역』의 괘효상(卦爻象)과 『홍범』의 구주(九疇)에 입각하여 『홍범』의 수가 1을 바탕으로 하여 3이 되고, 그 3을 바탕으로 하여 9가 되며, 또 그 9를 바탕으로 하여 81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여겼다.²⁷⁾

81수에는 각기 상(象)·사(辭)·효(爻)가 있고, 효는 元, 大, 吉, 咎, 祥, 吝, 平, 悔, 災, 休, 凶 등의 점사(占辭)로 표현되어 있다. 예를 들면 제1수인 原은 그 상(象)이 | | 이고 그 사(辭)가 “原, 元吉, 幾君子有慶”이다. 그 효(爻)의 변(變)은 元吉에서 시작하여 大凶으로 끝난다. 『홍범황극내편』의 81수 총 명칭과 구성은 <표 3>과 같다.²⁸⁾

24) 井川觀象, 『(姓名判斷) 名前のつけ方』(東京: 泰光堂), 1940.

25) 남송의 신유학자로서 자는 仲默이고 蔡元定の 셋째아들이다. 주희에게서 사사를 받고 평생을 九峰땅에 은거했기 때문에 구봉선생으로 불렸다. 저술로는 《書集傳》과 《洪範皇極》 등이 있다.

26) 김연재, 『『洪範皇極內篇』에 나타난 蔡沈의 數本論과 그 세계관』, 『유교사상연구』 42(한국유교학회, 2010), 40면.

27) 『洪範皇極內篇』 卷2, 皇極內篇(中), “數始于一, 參于三, 究于九, 成于八十一, 備于六千五百六十一. 八十一者, 數之小成也. 六千五百六十一者, 數之大成也. 天地之變化, 人事之始終, 古人之因革, 莫不于是著焉.”

28) 『洪範皇極內篇』 卷2, 皇極內篇數總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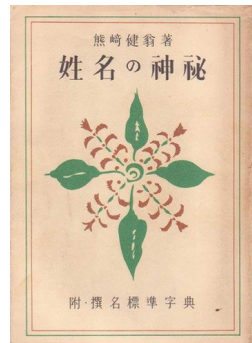
〈표 3〉 채침의 81수 명칭과 구성

	1	2	3	4	5	6	7	8	9
1	原	成	見	比	庶	飾	迅	實	養
2	潛	冲	獲	開	決	戾	懼	賓	遇
3	守	振	從	晉	豫	虛	除	危	勝
4	信	祈	交	公	升	味	弱	堅	囚
5	直	常	育	益	中	損	疾	革	任
6	蒙	柔	壯	章	伏	用	競	報	固
7	閑	易	興	盈	過	郤	分	止	移
8	須	親	欣	錫	疑	翁	訟	戎	墮
9	厲	華	舒	靡	寡	遠	收	結	終

그러나 현재 수리성명학에서 사용하는 81 영동수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본 쇼군(將軍)들의 한자 이름 획수 등에서 취용한 것이며 채침의 81수와는 완전히 별개로 구성된 것이다. 즉 '81'이란 숫자만 동일할 뿐 내용상은 전혀 상관이 없다.

많은 사람이 숫자에 관계된 약간의 신비한 믿음을 은밀하게 갖고 있다. 수비학자(數秘學者)들은 사람의 성명을 숫자로 풀이하면 그 사람의 진정한 인간성과 그 사람이 일생토록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²⁹⁾ 그리고 술수(術數)에서는 숫자가 수량을 표시하는 부호가 아니라 일종의 신비한 실재가 된다. 숫자에는 신성한 성질이 있어서 인간은 이를 통해 신의 의지를 꿰뚫어 볼 수가 있다고 한다.³⁰⁾

이처럼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 갖는 신비한 믿음을 이용하여 1920년대 후반 일본의 점술가이자 일본 성명학의 시조로 여겨지는 구마사키 겐오가 지금의 수리성명학을 처음으로 고안한 것이다. 구마사키는 성명을 5가지 격으로 구분하고 81



〈그림 6〉『姓名の神秘』
(1951년 간)

29) 리더스 다이제스트 편집부, 『상식의 허실』(동아출판사, 1992), 192면.

30) 俞曉群, 『數術探秘：數在中國古代的神秘意義』(北京：三聯書店, 1995), 5면.

영동수로 성명의 길흉을 판단하는 자신의 수리성명학의 요체를 1929년에 『성명의 신비(姓名の神秘)』란 책으로 발간하여 큰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이후 많은 성명판단·명명법이 보급되고 있지만 대부분 구마사키의 수리성명학에 발단을 두고서 분파되어 나왔다.

현대 수리성명학에서 81 영동수가 지니는 각각의 길흉 의미를 정리해보면 대략 <표 4>와 같다.³¹⁾ 대체로 양수(陽數)인 홀수는 길하게, 음수(陰數)인 짝수는 흉하게 배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수리성명학의 81 영동수 의미

수	격·운	길흉	수	격·운	길흉
1	두수격(頭首格)·시두운(始頭運)	○	2	분산격(分散格)·고독운(孤獨運)	×
3	명예격(名譽格)·복록운(福祿運)	○	4	파멸격(破滅格)·파괴운(破壞運)	×
5	성공격(成功格)·명재운(名財運)	○	6	풍후격(豐厚格)·덕후운(德厚運)	○
7	발달격(發達格)·발전운(發展運)	○	8	건강격(健康格)·강성운(剛盛運)	○
9	종국격(終局格)·시휴운(時虧運)	×	10	단명격(短命格)·공허운(空虛運)	×
11	갱신격(更新格)·재흥운(再興運)	○	12	유약격(柔弱格)·고수운(孤愁運)	×
13	총명격(聰明格)·지달운(智達運)	○	14	이산격(離散格)·파괴운(破壞運)	×
15	통솔격(統率格)·복수운(福壽運)	○	16	덕망격(德望格)·유재운(裕財運)	○
17	용진격(勇進格)·창달운(暢達運)	○	18	발전격(發展格)·융창운(隆昌運)	○
19	성패격(成敗格)·병악운(病惡運)	×	20	공허격(空虛格)·허망운(虛妄運)	×
21	자립격(自立格)·두령운(頭領運)	○	22	박약격(薄弱格)·단명운(短命運)	×
23	혁신격(革新格)·왕성운(旺盛運)	○	24	출세격(出世格)·축재운(蓄財運)	○
25	건강격(健康格)·재록운(財祿運)	○	26	만달격(晩達格)·영웅운(英雄運)	△
27	중절격(中折格)·중단운(中斷運)	×	28	풍파격(風波格)·파란운(波瀾運)	×
29	성공격(成功格)·향복운(享福運)	○	30	불측격(不測格)·불안운(不安運)	×
31	개척격(開拓格)·흥가운(興家運)	○	32	순풍격(順風格)·왕성운(旺盛運)	○
33	등룡격(登龍格)·융성운(隆盛運)	○	34	변란격(變亂格)·파멸운(破滅運)	×

31) 熊崎健翁, 앞의 책, 156-177면; 김백만, 『家庭作名法』(명문당, 1991), 68-84면; 임삼업, 『작명 백과사전』(삼한출판사, 2007), 136-141면.

35	태평격(泰平格) · 안강운(安康運)	○	36	영웅격(英雄格) · 파란운(波瀾運)	×
37	정치격(政治格) · 출세운(出世運)	○	38	문예격(文藝格) · 학사운(學士運)	○
39	장성격(將星格) · 지휘운(指揮運)	○	40	변화격(變化格) · 공허운(空虛運)	×
41	고명격(高名格) · 제중운(濟衆運)	○	42	신고격(辛苦格) · 수난운(受難運)	×
43	성쇠격(盛衰格) · 산재운(散財運)	×	44	침마격(侵魔格) · 파멸운(破滅運)	×
45	대각격(大覺格) · 현달운(顯達運)	○	46	비에격(悲哀格) · 비수운(悲愁運)	×
47	전개격(展開格) · 득시운(得時運)	○	48	제중격(濟衆格) · 영달운(榮達運)	○
49	변화격(變化格) · 성패운(成敗運)	△	50	성패격(成敗格) · 상반운(相半運)	×
51	성쇠격(盛衰格) · 길흉운(吉凶運)	×	52	승룡격(昇龍格) · 시승운(時乘運)	○
53	내허격(內虛格) · 반길운(半吉運)	×	54	무공격(無功格) · 패가운(敗家運)	×
55	미달격(未達格) · 불안운(不安運)	×	56	한탄격(恨歎格) · 패망운(敗亡運)	×
57	봉시격(逢時格) · 강성운(剛盛運)	○	58	선곤격(先困格) · 후복운(後福運)	△
59	재화격(災禍格) · 불성운(不成運)	×	60	동요격(動搖格) · 재난운(災難運)	×
61	이지격(理智格) · 재리운(財利運)	○	62	화락격(花落格) · 쇠퇴운(衰退運)	×
63	순성격(順成格) · 발전운(發展運)	○	64	봉상격(逢霜格) · 쇠퇴운(衰減運)	×
65	번영격(繁榮格) · 흥가운(興家運)	○	66	암야격(暗夜格) · 실등운(失燈運)	×
67	천복격(天福格) · 영달운(榮達運)	○	68	명지격(明智格) · 발명운(發明運)	○
69	종말격(終末格) · 정지운(停止運)	×	70	공허격(空虛格) · 암야운(暗夜運)	×
71	현룡격(見龍格) · 발전운(發展運)	△	72	상반격(相半格) · 후곤운(後困運)	×
73	평길격(平吉格) · 안과운(安過運)	△	74	우매격(愚昧格) · 불우운(不遇運)	×
75	적시격(適時格) · 평화운(平和運)	△	76	선곤격(先困格) · 후성운(後盛運)	×
77	전후격(前後格) · 길흉운(吉凶運)	△	78	선길격(先吉格) · 평복운(平福運)	△
79	종극격(終極格) · 종말운(終末運)	×	80	종결격(終結格) · 종지운(終止運)	×
81	환원격(還元格) · 갱희운(更喜運)	○	○(길) △(평) ×(흉)		

또한 구마사키에서 비롯된 일본의 수리성명학이 일본 쇼군들의 흥망성쇠에 그들의 한자성명 글자의 획수를 구마사키가 의도적으로 짜 맞춘 것이라는 사실은 일본 역사상 3대 쇼군인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일생동안 흥망성쇠 · 길흉화복과 그들 한자성명 글자 획수의 길흉 배정 관계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1534~1582, 불같은 성격의 전제군주로서 일본 전국시대의 오랜 혼란을 종식시키고 전국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1549년 아버지의 영지를 이어받아 뛰어난 전략으로 영토를 계속 확장시켰다. 1562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동맹을 맺고 세력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1568년 아시카가 요시아키(足利義昭)를 받들어 교토로 들어가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요시아키를 추방하고 무로마치(室町) 막부를 멸망시켰다. 노부나가는 신중한 준비와 압도적으로 우세한 병력을 갖추고서 단숨에 결전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織(18획) 田(5획) 信(9획) 長(8획)

천격: 織(18) + 田(5) = 23 ⇒ 혁신격(革新格) · 왕성운(旺盛運) ○

인격: 田(5) + 信(9) = 14 ⇒ 이산격(離散格) · 파괴운(破壞運) ×

지격: 信(9) + 長(8) = 17 ⇒ 용진격(勇進格) · 창달운(暢達運) ○

외격: 織(18) + 長(8) = 26 ⇒ 만달격(晩達格) · 영웅운(英雄運) △

총격: 織(18) + 田(5) + 信(9) + 長(8) = 40 ⇒ 변화격(變化格) · 공허운(空虛運) ×

1582년 노부나가는 일본의 중앙부를 거의 장악하여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었다. 아직 건재하던 모리 테루토모(毛利輝元)를 정벌하기 위해 직접 출정하였는데, 그 도중 교토의 혼노사(本能寺)에서 가신인 아케치 미쓰히데(明智光秀)의 모반으로 통일 위업을 이루지 못한 채 자살하였고, 장남 노부타다(信忠)도 자결하였다.³²⁾ 따라서 오다 노부나가의 성명 한자 획수에서 흉수인 14와 40, 영웅의 수인 26을 취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 오다 노부히데(織田信秀)를 섬기는 하급 신하의 아들로 태어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가 시작한 일본 통일의 위업을 완수하였고, 그 여세를 몰아 명한(明韓) 정벌도 일으켰다. 일본 역사상 가장 웅대한 제국주의시대를 실현한 영

32) 『日本人名大事典(新撰大人名辭典)』 제1권(東京:平凡社, 1990), 701~702면.

웅으로 칭송된다. 1558년 이후 노부나가의 휘하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며 거듭 발탁되었다. 1582년 아케치 미쓰히데의 배반으로 노부나가가 사망하자 그의 원수를 갚고 실권을 장악하였다.

豊(18획) 臣(6획) 秀(7획) 吉(6획) 천격: 豊(18) + 臣(6) = 24 ⇒ 출세격(出世格) · 축재운(蓄財運) ○ 인격: 臣(6) + 秀(7) = 13 ⇒ 총명격(聰明格) · 지달운(智達運) ○ 지격: 秀(7) + 吉(6) = 13 ⇒ 총명격(聰明格) · 지달운(智達運) ○ 외격: 豊(18) + 吉(6) = 24 ⇒ 출세격(出世格) · 축재운(蓄財運) ○ 총격: 豊(18) + 臣(6) + 秀(7) + 吉(6) = 37 ⇒ 정치격(政治格) · 출세운(出世運) ○

1584년부터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와 동맹관계를 맺고 그 반대세력을 모두 제압하여 1590년 일본을 통일하였다. 통일 후 다이코(太閤)가 되었으며 다이묘(大名)들의 충성을 강요하는 대신 그들의 영지를 인정하여 봉건제도를 확립하고 일본 전역을 통치하였다. 해외로 영토를 확장하려는 야망을 갖고 명나라 정복을 위한 협조를 조선에 요청하였다가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1592년 조선을 침공하였다.³³⁾ 따라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명 한자 획수에서는 전부 길수만을 취하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1542~1616, 오다 노부나가가 창조적 영웅이라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경영적 영웅이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둘 다를 겸비한 영웅이다. 오카자키(岡崎) 성주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582년 노부나가가 죽은 후 히데요시와 일시적으로 대립하였으나 곧 동맹을 맺고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히데요시의 2차례에 걸친 조선 침공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세력을 보존하였고, 1598년 히데요시가 죽자 그의 지지 세력을 세키가하라(関ヶ原) 전투에서 격파하고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33) 『日本人名大事典(新撰大人名辭典)』 제4권(東京:平凡社, 1990), 479~482면.

德(15획) 川(3획) 家(10획) 康(11획)

천격: 德(15) + 川(3) = 18 ⇒ 발전격(發展格) · 융창운(隆昌運) ○

인격: 川(3) + 家(10) = 13 ⇒ 총명격(聰明格) · 지달운(智達運) ○

지격: 家(10) + 康(11) = 21 ⇒ 자립격(自立格) · 두령운(頭領運) ○

외격: 德(15) + 康(11) = 26 ⇒ 만달격(晩達格) · 영웅운(英雄運) △

총격: 德(15) + 川(3) + 家(10) + 康(11) = 39 ⇒ 장성격(將星格) · 지휘운(指揮運) ○

1603년 세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이 되었고, 전국의 다이묘들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에도(江戸) 막부를 개설하였다. 그래서 일본 전국의 통일을 완성하고 자신의 지위를 합법화하였다. 권력을 확립한 후 노부나가와 히데요시의 정책도 계승했으며 군사력과 경제력을 충실히 함으로써 일본의 봉건제 사회를 확립하였다.³⁴⁾ 따라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성명 한자 획수에서는 길한 수와 영웅의 수 26을 취하였다.

총괄해보면 구마사키의 수리성명학은 일본 전국시대 무로마치 막부를 멸망시키고 일본 천하를 통일하기 직전 죽임을 당한 오다 노부나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도 막부를 열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 등 일본 쇼군들의 흥망성쇠에 그들의 한자성명 글자의 획수를 구마사키가 의도적으로 짜 맞추고, 달[月]과 여성을 상징하는 음(陰)은 흉한 것으로, 태양[日]과 남성을 상징하는 양(陽)은 길한 것으로 하여 81개의 길수(吉數)와 흉수(凶數)로 구분해 만들어진 작명법이다. 그리고 구구원수도 등에 바탕을 둔 채침의 81수 관념이나 음양오행론·상수론 등과도 전혀 무관하다.

3) 창씨개명과 일본 성명학의 전파·영향

한국인의 이름은 시조(始祖)의 출신 지명에 따라 본관(本貫)을 쓰고, 부계의 혈통에 따라 성(姓)을 쓰고, 남자의 경우 같은 혈족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간 계통 사이의 대수(代數) 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항렬자로 명(名)을 써왔다. 그러므로 사

34) 같은 책, 401~403면.

람의 이름자에 담긴 음양오행 등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인식 또한 그리 없었다. 따라서 창씨개명이 강행되기 전인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운명론을 구실로 하는 일본식 수리 작명법이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

창씨개명은 중일전쟁 후 식민지 조선에 강화된 ‘내선일체(內鮮一體)’·‘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의 전형이며, 조선인에게 징병제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했다. 나아가 일본이 식민지 지배의 기본 방침이었던 조선인 ‘동화(同化)’ 정책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939년 11월과 12월에 개정조선민사령(改正朝鮮民事令) 및 기타 법령이 공포되었고, 이듬해인 1940년 2월 11일에 시행되었다. 이들 법령에 의하면 창씨(創氏) 즉 씨의 설정은 의무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임에 비해 개명(改名)은 임의이고 허가를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1940년 2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6개월 동안의 신고 기간 안에 씨를 신고한 것은 약 80%(조선인 호수에 대한 비율), 이름을 바꾼 것은 약 10%(조선인 인구에 대한 비율)이었다. 창씨개명 신고에 즈음하여 행정기관·경찰·학교·언론·각종 단체 등을 통해 다양한 압력이 가해졌다.³⁵⁾

1940년 2월 11일 일본의 건국기념일인 기원절(紀元節)에 맞춰 “천황폐하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조선인도 일본식 씨(氏)로 이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되었다.”는 구실하에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창씨개명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³⁶⁾ 이에 따라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개명을 하도록 강압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마사키의 일본식 수리 작명법이 신문광고를 통해 널리 전파되고 크게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서는 창씨개명 시행을 전후하여 1940년 2월부터 11월까지 일본식 성명학에 대한 광고가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이때 일본의 성명학자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현혹적인 광고를 하면서 사람들의 많은 주목을 끌었다. 총독부의 조선어 기관지 『매일신보』에 창씨개명 신고 첫



〈그림 7〉 일본의 新姓名學 광고
 《매일신보》 1940년 2월 11일자

35)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앞의 책, 27-28면, 124-136면.

36) 미야다 세츠코·김영달·양태호 지음, 정운현 편역, 앞의 책, 71면.

날인 1940년 2월 11일 게재된 일본성명학관(日本姓名學館) 명의의 “人間一代의 吉凶運勢를 左右하는 新姓名學”이란 광고 문구와 내용이³⁷⁾ 추후 전개될 한국 성명학계의 미래를 단적으로 잘 보여준다.

人間一代의 吉凶運勢를 左右하는! 新姓名學과 姓名짓는 法!

<p>右人は 곳(쪽) 읽어라 正確 姓名學에 依하여 姓名의 吉凶을 알고 改名, 또는 愛兒命名에 依하여 新幸運을 얻고저 하는 분은 姓名學界의 權威者 増田 儒彦 先生著作의 本書에 依하여 卽席에 應用하시라! (朝鮮名을 内地名으로 긋치는 境遇는 本書에 依하여 適正한 姓名을 지으시라) …(중략)… 東京市豊島區池袋二丁目 日本姓名學館 …(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家族에 病人이 不絶하는 분 ◎ 家内に 風波가 不絶하는 분 ◎ 무슨 일이고 失敗하는 분 ◎ 良緣을 못 求하는 분 ◎ 病弱하고 아해 만흔(아이 많은) 분 ◎ 一定한 職業업는 분 ◎ 財寶에 緣이 업는 분 ◎ 家業破滅 住居不定의 분 ◎ 災厄 苦難이 만흔 분
--	---



〈그림 8〉 구마사키식(熊崎式) 성명학 광고
 『매일신보』, 1940년 2월 26일자(재), 4월 24일자(우)

그리고 〈그림 8〉의 좌측 광고(1940년 2월 26일자) 문구에 등장하는 “구마사키 식 성명학(熊崎式姓名學), 성명학계의 최고 권위(姓名學界의 最高權威) 구마사키 겐오 선생의 수제자(熊崎健翁先生高弟), 오성각 성학사(五聖閣聖學士), 개운지도(開運指導), 창씨개명·명명(작명) 비교연구가 되다(創氏改名,命名比較研究されよ), 통지하는 대로 설명서를 보냄(通知次第説明書送る)”과 우측 광고(1940년 4월 24일자) 문구에 등장하는 “창씨개명·명명(작명)은 구마사키 성명학으로(創氏改

37) 『매일신보』, 1940. 2. 11, 석간 2면.

名,命名は熊崎姓名學), 전 조선에 걸친 직접 지도(全鮮に亘る直接指導), 조선에 가장 연고가 깊은 성명학 전문의 1인자(朝鮮に最も緣故深き姓名學専門の一人者) 히다카 선생의 『개명의 행운실화』 증정(日高師改名の幸運實話贈呈)” 등의 내용에서도 일본식 성명학을 행운(幸運) 및 개운(開運)과 연결시켜 조선인에게 전파하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성명이 운명과 신비한 관계에 있고, 일생의 운명을 좌우하는 성명을 내지인(內地人) 즉 일본인과 같이 지을 수 있다는 <그림 9>의 광고 내용도 일본식 성명학이 한국으로 전파되는 당시의 정황을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광고하는 책은 1940년 4월 발매 초기에는 1원20전이었던가 5월부터는 1원으로 할인 판매도 실시하면서 일본식 성명학의 보급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그림 9> 『매일신보』 1940년 5월 22일자 성명학 광고

內地人과 同名으로 갖칠수 잇는 改姓改名 姓名짓는法
姓名과 運命의 神秘的 關係, 姓名學과 字劃字音의 關係

이런 內鮮一體의 實을 示現키 爲하야 半島同胞는 누구나 모다 內地人과 가튼 氏名으로 改姓改名할수 잇게 되었습시다. 實로 千載一遇의 好機會라 하겠지요. 姓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品位人格을 表現하는 靈的이 것이다. 姓名과 運命과는 不可思議의 神秘的 關係가 잇서, 一生의 運命을 左右하는 것인 故로 選名에는 多少의 心得이 업서서는 안 된다. 自己의 改姓改名은 無論, 子孫愛兒를 爲하야 良名을 選擇함은 父母의 急務이다. 本社에서 發賣한 『名前のつけ方』라는 良書는 姓名의 選定法, 짓는法을 詳細히 說明하고 字劃字音의 關係를 詳解하야, 엇더한 素人이라도 잘 理解할 수 잇도록 『姓名學』을 알기 쉽기 平易하게 解説하고 改姓改名의 方法을 遺漏업시 懇切히 詳述되어있다. 目下發賣記念大特賣를 爲하야, 割引特價 僅히 金一圓으로 賣出中. 東京市杉並區和泉町九三二番地, 帝都出版社에 葉書로 『名前のつけ方』 보내라고 申込하면 代金引換으로 寄 送本한다.³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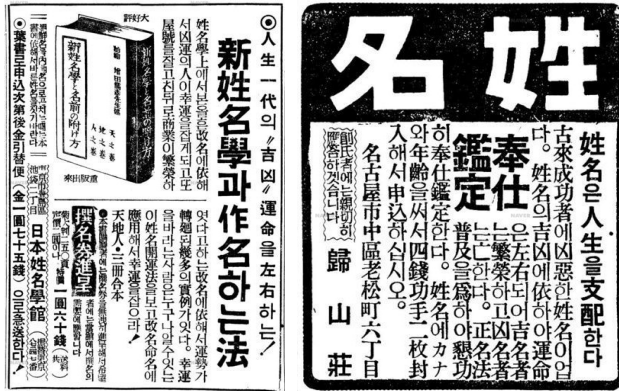
〈그림 10〉 『매일신보』 관상·사주 광고 1940년 1월 15일자(좌, 창씨개명 시행 전), 1940년 12월 21일자(우, 창씨개명 시행 후)

이러한 일본 작명가와 출판사들의 대대적인 물량 광고와 과격적인 판매 전략으로 말미암아 창씨개명 시기 후에는 성명 글자가 운명의 길흉과 연관되므로 이름을 가려서 잘 지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생겨났다. 이런 사실을 〈그림 10〉의 두 광고의 문구에서 작명·개명과 연관되는 ‘선명(選名)’이란 용어의 차이에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둘 다 관상·사주에 대한 광고이지만 창씨개명 시행 전의 광고(1940년 1월 15일자) 문구에는 “觀相 四柱 卜術에도 通靈되야 人生骨相의 富貴貧賤과 吉凶禍福의 避凶就吉이 如合府(符)節이며 四柱 平生 流年 一年十二月評의 身數 財日數 金礦 就職 米豆 商業 生男 婚姻 等事에 百發百中이고 (…)”하면서 작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는 반면, 창씨개명 시행이 종료된 후의 광고(1940년 12월 21일자) 문구인 “觀相·四柱·六爻·身數·選名·擇日·宮合·病占·就職·試驗·株式·鑛山·水産·其他人事百般”에는 성명의 길흉 판단과 관련된 ‘選名’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볼 때 창씨개명 시행 전에는 없거나 미약했던 작명·개명에 대한 운명 인식이 창씨개명 시행 후에는 생겨났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성명이 일생의 길흉 운세를 좌우하고, 운명과 신비한 관계가 있으며, 성명은 인생을 지배하므로 길명자(吉名者)는 번영하고 흉명자(凶名者)는 망한다는 등의 개

38) 『매일신보』, 1940년 5월 22일자 조간 1면.



〈그림 11〉 1940년 6~7월의 성명학 광고
『동아일보』 1940년 6월 3일자(좌), 7월 18일자(우)

명·작명 광고가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만큼 대대적은 아니지만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도 꾸준히 게재되었다. 특히 신고 기한 마감에 다가온 1940년 6월부터 8월초에 집중적으로 광고되었다. 당시 일본의 작명가들에게는 조선에서의 창씨개명 강행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성명학 전파를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였으므로 연일 전방위에 걸쳐 그들의 일본식 성명학을 홍보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 이후 구마사키 수리성명학의 영향을 받아 분파되어 나온 일본 작명가들에 의해 창씨개명 시기 당시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파되면서 성행하기 시작한 일본식 수리성명학의 잔재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채 엄연히 존재해오고 있다. 창씨개명 강행 이후 현재까지도 한국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수리성명학의 예시(〈그림 2, 3〉)와 구마사키로 대표되는 일본 성명학의 오격부상법(〈그림 5〉)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에서 이런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수리성명학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일부 작명가들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아 자신들의 특수한 작명법으로 이름을 짓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라도 당할 것처럼 말을 한다. 이름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일생의 길흉을 결정하므로 자기들만의 작명법에 의해 이름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고 혹세무민을 한다. 이러한 행태는 일제 창씨개명 시기 당시 일본 작명가들이 성명과 운명의 길흉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일본식 성명학으로 개성(改姓)과 개명(改名)을 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과대과장 광고를 하면서 펼치던 운명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

고 있는 것이다.

황국신민화를 위한 사회교화의 목적으로 1933년 무라야마 지준이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펴낸 『조선의 점복과 예언』에도 이름이 당사자의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당시 조선사회에서 크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창씨개명 시기를 거치면서 이름과 결부된 과장된 운명논리가 당시 신문광고에서 대대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창씨개명을 강행한 배경은 1937년 7월 일본의 침략으로 발발한 중일 전쟁의 위기감 속에서 조선에 징병제를 시행하고 전쟁 총동원을 위해 내선일체란 구실로 강력한 황민화 정책을 전개한 것과 맞물려 있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가 패배로 끝남에 따라 일본식 성명(씨명)의 사용은 불과 5년 만에 그쳤다. 하지만 일본식 성명학 방법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작명하는 관행과 그 전과 과정에서 호도된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과장 논리는 불식되지 않은 채 대다수 국민은 물론이고 일반 작명가들조차도 모르는 가운데 여전히 고착되어 성행하고 있다.

4. 맺음말

1940년 일제에 의해 창씨개명이 강행되기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운명론을 구실로 하는 일본식 성명학이 전혀 통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일생의 길흉을 결정한다는 과장된 운명론적 논리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창씨개명 시기 이후 한국인에게 이름은 단지 호칭 부호나 가문을 나타내는 부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운명 부호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다.

성명 한자의 획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배합한 수로 4~5개의 격을 정한 후, 그에 해당하는 1~81수의 의미로 이름과 운명의 길흉 관계를 판단해서 이름을 짓는 수리성명학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작명법이다. 우리나라 대다수 작명가들은 이러한 한자 성명의 수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있다.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므로 한글이름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작명가들조차도 한자 획수를 한글 획수로만 대체할 뿐 그 유래는 모른 채 일본식 성명학에서 파생된 수리성명학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수리성명학의 기원은 일본 성명학의 시조인 구마사키 겐오(熊崎健翁)가 1920년대 후반에 창안한 오격부상법(五格剖象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에서 『성명의 신비(姓名の神秘)』란 서명으로 발매되면서 큰 주목을 받은 이 작명법은 일본 쇼군들의 흥망성쇠에 그들의 한자성명 글자의 획수를 구마사키가 의도적으로 짜 맞추고, 달과 여성을 상징하는 음(陰)은 흉한 것으로, 태양과 남성을 상징하는 양(陽)은 길한 것으로 하여 81개의 길수와 흉수로 구분해 만들어진 작명법이다. 이러한 구마사키의 수리성명학은 현재 우리나라 수리성명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1930년대에 구마사키 수리성명학을 학습한 일본 작명가들에게는 때마침 조선에서 강압적으로 시행된 창씨개명 정책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 창출과 일본식 성명학 전파를 위해서 결코 놓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연일 신문 광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일본식 성명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이때 일본의 작명가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이름이 좋은 사람은 번영하고 이름이 흉한 자는 망한다.”는 등의 현혹적인 과대광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개운할 수 있도록 전 조선에 걸쳐 직접 지도하겠다.”는 구마사키식 성명학 광고에서도 그런 의도를 잘 읽을 수가 있다.

그 여파로 말미암아 창씨개명 시기 이전에는 그리 일반화되지도 대두되지도 않았던,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의 일생의 길흉과 깊이 연관되므로 이름을 가려서 잘 지어야 한다는 운명론적 인식이 창씨개명 강행 후에 일본의 성명학자들에 의해 생겨났으며, 길한 이름과 흉한 이름을 가리는 기준으로서 일본식 수리성명학이 성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수리성명학은 작명할 때에 좀처럼 무시할 수 없는 철칙으로 존재해 오고 있다. 수리성명학을 중시하지 않는 일부 작명가들도 그 상황은 다르지 않아 일본 작명가들이 내세우던 과장된 운명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내선일체란 명분 아래 조선에서 황민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강행한 창씨개명은 일본 제국주의의 실패로 비록 5년 만에 끝났지만 일본식 성명학으로 한국인의 이름을 작명하는 관행과 이름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과장된 논리는 통계학이란 미명하에 불식되지 않은 채 여전히 고착되어 우리나라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런 비합리적 실태의 개선 과정에 본 연구가 단서가 되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 방식을 다각도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참고문헌

- 『三國史記』, 『三國遺事』, 『燕山君日記』, 『禮記大全』, 『春秋左傳注疏』, 『浩亭先生文集』, 『洪範皇極內篇』.
- 구광모, 「창씨개명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국제정치논총』 45(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 김민태, 「현대 한국사회의 이름짓기 방법과 특성에 관한 고찰: 기복신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65, 한국종교학회, 2011a.
- _____, 「한국 일생의례의 성격 규명과 주술성」, 『정신문화연구』 34(1),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b.
- 김백만, 『家庭作名法』, 명문당, 1991.
- 김세봉, 「한국인의 성과 이름에 대하여」, 『동양학간보』 13,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2.
- 김연재, 「『洪範皇極內篇』에 나타난 蔡沈의 數本論과 그 세계관」, 『유교사상연구』 42, 한국유교학회, 2010.
- 김용욱, 「韓國姓氏에 관한 法制史的 研究」, 『가족법연구』 9, 한국가족법학회, 1995.
- 김필동, 「일제의 창씨개명정책과 족보: 지역 중족집단의 대응전략」, 『사회과학연구』 21(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 리더스 다이제스트 편집부, 『상식의 허실』, 동아출판사, 1992.
- 미야다 세츠코 · 김영달 · 양태호 지음, 정운현 편역, 『創氏改名』, 학민사, 1994(宮田節子 · 金英達 · 梁泰昊, 『創氏改名』, 東京: 明石書店, 1992).
- 미즈노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창씨개명: 일본의 조선지배와 이름의 정치학』, 산처럼, 2008(水野直樹, 『創氏改名: 日本の朝鮮支配の中で』, 東京: 岩波新書, 2008).
- 박승목, 「성명학의 이론정립과 과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송하순, 「성씨별 형렬자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신도희, 「성명의 시대적 변천과정과 사용현황 연구」,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안승웅, 「한국인의 작명실태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이광숙, 「사회계층과 작명」, 『어학연구』 17(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1.
- 이대화, 「'창씨개명' 정책과 조선인의 대응」, 『승실사학』 26, 송실대학교사학회, 2011.
- 이복규, 「한국인의 이름에 대하여」, 『온지논총』 16, 온지학회, 2007.
- 이승일,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창씨개명 · 개성명 비교 연구」, 『대동문화연구』 7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1.
- 이훈중, 「우리나라 작명에 관한 연구」, 『건대학술지』 14, 건국대학교, 1972.
- 임삼엽, 『작명 백과사전』, 삼한출판사, 2007.
- 정주수, 『창씨개명 연구』, 동문, 2003.
- 주림림, 「한국과 중국의 이름에 관한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채소영, 「성명학의 이론적 고찰」,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최재성, 「'창씨개명'과 친일 조선인의 협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연구소, 2010.
- 관원진일, 「"明治民法"의 성씨제도와 "創氏改名"(朝鮮) "改姓名"(臺灣)의 비교분석」, 『법사학연구』 22, 한국

- 법사학회, 2000.
- 필사자 미상, 『作名秘要』,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914.
- 허 웅, 『한글과 민족문화』,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俞曉群, 『數術探秘: 數在中國古代的神秘意義』, 北京: 三聯書店, 1995.
- 金英達, 『創氏改名の研究』, 東京: 未來社, 1997.
- 熊崎健翁, 『姓名の神秘』, 東京: 紀元書房, 2009.
- 井川觀象, 『(姓名判斷) 名前のつけ方』, 東京: 泰光堂, 1940.
- 村山智順, 『朝鮮の占トと豫言』, 朝鮮總督府, 1933.
- 『日本人名大事典(新撰大人名辭典)』 제1권, 東京: 平凡社, 1990.
- 『日本人名大事典(新撰大人名辭典)』 제4권, 東京: 平凡社, 1990.
- 『동아일보』 1940. 6. 3 / 7. 18.
- 『매일신보』 1940. 1. 15 / 2. 11 / 2. 26 / 4. 24 / 5. 22 / 12. 21.
- 『한국일보』 2010. 3. 22.

The Vestiges of Japanese Naming-ology Propagated in the Period of Name Changing Program by Japan

Kim, Man-Tae*

Mathematical(數理) naming-ology, originated from Ogyeogbusangbeob(五格剖象法), which is a method of inference upon the classification of 5 forms created by Gumasaki Genoh(熊崎健翁), a father of Japanese naming-ology in the late 1920s, is the most widely adopted naming method in South Korea. The mathematical naming-ology assumes that the destiny is dependent on 81 mythical meanings of the calculation(數), and classifies a name into 5 forms-Cheon(天, heaven)·In(人, human)·Ji(地, earth)·Chong(總, whole)·Oe(外, outside) and computes the number of strokes for the name for each of the 5 forms to tells a person's fortune.

In the 1940s, the enforcement of the name changing program in Chosun was a great opportunity for Japanese namers to create financial profits and propagate Japanese naming-ology. Therefore, they consistently exaggerated and promoted Japanese naming-ology whenever they had a chance. Thus, after implementing the name changing program, it has been perceived that a name is deeply related with one's destiny in Korea and Japanese naming-ology has been favored to classify fortunate names and unfortunate names.

In the past, a name was considered to be a simple title representing a person and/or a house in Korea. However, ever since implementation of the name changing program, it has become a complicated symbol for one's destiny, and Japanese naming-ology has become a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fortunate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Future Anticipation,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names and unfortunate names. The name changing program, which was executed for mobilizing of Korea for a ware under the pretext of ‘Korea and Japan are the one’, was stopped only after 5 years along with the defeat of Japanese imperialism, but still a practice of naming in compliance of Japanese naming-ology and the exaggerated naming logic that a name determines one’s destiny are alive under the cloak of statistics.

Key Words : Name changing program, Naming-ology, Mathematical naming-ology, Gumasaki Genoh(熊崎健翁), 81 calculations, Naming